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학업 서열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으로 조절되는 학업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홍 세 미 연 규 진[†]

서강대학교 / 석사 졸업 서강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국내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내 학업 서열이 학업 자아개념을 매개하여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두 집단에서 그 관계가 상이한지 검증하였다. 또한 두 집단에서 학업 서열, 학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의 구조적 관계를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조절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의과대학생 152명과 일반대학생 155명, 총 307명의 온라인 설문 응답을 SPSS 28.0과 PROCESS macro 4.0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두 집단에서 학업 서열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학업 자아개념이 매개하였으며, 학업 서열, 학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의과대학생 집단에서 학업 서열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으로 조절된 학업 자아개념이 매개하였다. 즉, 의과대학생 집단에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클수록 학업 서열이 학업 자아개념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다. 일반대학생 집단에서는 학업 자아개념의 매개효과가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으로 조절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학업 서열, 학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의과대학생

* 본 연구는 홍세미(2022)의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학업 서열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화: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으로 조절되는 학업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연규진,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041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다산관 336호

Tel: 02-705-8327, E-mail: kjyon@sogang.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이 화두에 오르면서 한국 사회의 과잉 교육열이 조망되고 있다(교육부, 2023). 청소년의 학업을 향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한국은 학력주의 현상으로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성취 압력이 크다(봉미미 등, 2008). 대학입시에서 벗어난 대학생과 성인들 역시 앞서 언급한 학업 경쟁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취업난과 전문직 선호 현상 등으로 학업성취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대학 입학 이후에도 개인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신입생이 호소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학업 및 진로 문제로 드러났다(금명자, 남향자, 2010).

과도한 학업 경쟁은 학업성취도와 무관하게 개인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미국과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및 자아개념을 비교한 연구(김의철 등, 2004)에서 한국 학생은 미국 학생에 비해 우수한 학업성취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자아개념을 갖고 있었다. 서양 국가에 비해 아시아 국가에서 학업 압력과 학업 스트레스가 더욱 두드러지고(Lee & Lee, 2018), 한국 청소년은 자신보다 성적이 우수한 상향 대상과 비교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한덕용, 장은영, 2003)을 고려하면, 한국 학생들은 일정 수준의 학업성취를 거둬도 외부 압력이나 기대에 따라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더 혹독할 수 있다. 그러나 후기 청소년 혹은 초기 성인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가 자신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학령기 대상의 연구에 비해 제한적이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에 비해 자아개념이 안정적이라고 알려진 대학생에게도 이 같은 가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Mortimer et al., 1982; Orth et

al., 2010).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자아개념의 하위 요소 중 하나인 학업 자아개념이 일반적인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자아개념의 삼차원적인 위계적 구조에 따르면, 최상위의 일반 자아개념은 학업 자아개념과 중요타인 자아개념, 정의 자아개념으로 분류된다(송인섭, 1999). 학업 영역의 특수한 자아개념인 학업 자아개념은 학업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에 관한 인식 혹은 평가를 의미하며 세부적으로 학급 자아개념, 성취 자아개념, 능력 자아개념으로 구성된다. 국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자아개념검사의 구인타당화 연구에 따르면 4차원의 일반 자아개념 요인에 대한 3차원의 학문 자아개념의 회귀계수는 .87로, 학문 자아개념이 일반 자아개념에 대하여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인섭, 이희현, 2005). 즉,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일반적인 자아개념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자아개념과 더불어 한국에서는 학업성취 수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Rosenberg 등(1995)은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개념으로 자기 존중의 정도 혹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라고 하였고, Gordon(1969)은 자신의 잠재적 활동과 중요한 타인의 평가를 반영한 개개인의 평가지향이라고 정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이 타인에 의해 반영된 평가이자 사회적 비교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원리를 고려하면(Rosenberg et al., 1995),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가치 있고 사회적으로 수용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능력과 사회적 수용에 관한 자기평가의 결

과로도 이해할 수 있다(Newman & Newman, 1983). 특정 평가 사건이나 평가 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증진되거나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학업성취 압력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는 학업성취에 따라 학습자의 자아존중감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중학생 3,449 명의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러 예측 요인 가운데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 초기치와 정적인 관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익중, 2007).

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업성취도, 학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이라는 세 변인 간 관계는 다음 3가지 모형으로 요약된다(Brown & Mankowski, 1993; Marsh & Yeung, 1998; Shavelson et al., 1976). 첫째, Shavelson 등(1976)은 영역 특수적인 자아개념이 영역 일반적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며, 이후 Marsh와 Yeung(1998)은 이러한 상향적 영향력을 Bottom-Up(BU) 모형으로 명명했다. 이들은 개인의 학업성취도에 의해 위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학업 자아개념이 변화하며,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수준의 일반 자아개념 혹은 자아존중감도 변화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가교육 종단연구의 8학년 패널 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Ross & Broh, 2000). 포르투갈 중학생 83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7학년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lves-Martins et al., 2002). 둘째, Brown과 Mankowski(1993)는 BU 모형과 달리 일반 자아존중감이 학업 자아개념 또는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문항이 개인의 현재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자아존중감이 영역 특수적 자아개념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하다고 가정했다. Marsh와 Yeung(1998)은 이러한 하향적 영향력을 Top-Down(TD) 모형으로 명명하였다. 필리핀의 11~13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를 유의하게 예측했고(Watkins & Astilla, 1980), 이스라엘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생들이 학교에 원활히 적응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Lipschitz-Elhawi & Itzhaky, 2005). 이들 연구 모두 자아존중감이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앞선 두 모형을 통합한 상호순환 효과(Reciprocal Effect; RE) 모형은 일반 자아존중감과 영역 특수적 자아개념, 영역 특수적 자아개념과 성취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형이다(Marsh & Yeung, 1998). 미국의 2~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와 수학 등의 과목에서의 학업 자아개념과 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두 요인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RE 모형의 가능성을 뒷받침하였다(Guay et al., 2003)

국내에서는 학업성취의 결과로 형성된 학업 자아개념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BU 모형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비교 혹은 학업적 성공이 강조되는 환경에서는 세 모형 중 BU 모형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Marsh & Yeung, 1998; Sewasew & Schroeders, 2019; Trautwein et al., 2006). 한국 교육은 치열한 입시경쟁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으며(정용교, 백승대, 2011; 지은림, 2004; 최선주 등, 2012), 부모가 자녀의 학업 서열을 또래와 비교하는 경우가 잦아 자녀에게 학업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학업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부정적 학업 자아개념을 갖게 하는 경향이 있다

(손선경, 조한익, 2013). 실제로 국내에서는 TD 모형이 입증되지 못한 연구, 즉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김중환, 2001; 이경화, 정혜영, 2006).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이경화, 정혜영, 2006). 국내 다른 연구에서도 학업 자아개념은 일반적인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상현, 손원숙, 2019).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부모와의 애착보다 학업성취에 더 큰 영향을 받아 BU 모형을 지지하였다(이경은, 이주리, 2008). 그러나 학업성취도와 학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간 관계를 직접 확인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고, 후기 청소년 혹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가 학업 자아개념을 매개하여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BU 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대학생의 소속 집단에 따라 BU 모형을 구성하는 변인 간 관계, 즉 경로계수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학업 자아개념은 학업 상황 안에서 자신의 능력에 관한 인식 혹은 평가를 의미하는데(Bong & Skaalvik, 2003; Ferla et al., 2009), 소속 집단 전체의 학업성취 수준이 개인의 학업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학업 우수 집단에 속한 학생이 겪는 독특한 어려움으로서 학업 집단 효과 혹은 큰 물고기-작은 연못 효과(Big-Fish-Little-Pond Effect; BFLPE)를 제안했다

(김명찬, 2013; Jackman et al., 2011; Marsh & Parker, 1984). 학업 집단 효과란, 고성취 학업 집단에 속한 학생의 학업 자아개념이 일반 집단에서 동일한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에 비해 더 낮은 현상을 일컫는다. Marsh 등(1995)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에 속한 학생은 자신의 성취를 소속 집단 평균과 비교하면서 영역 특수적인 학업 자아개념뿐 아니라 일반적인 자아존중감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서열이 낮아지면서 예전처럼 공부를 잘한다고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부정적인 학업 자아개념이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학업 집단 효과는 미국 87개 학교에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Marsh, 1987)와 홍콩 44개 학교에서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Marsh et al., 1999) 등에서도 입증되었다.

학업 우수 학생들이 모인 집단의 구성원은 높은 확률로 성적 하락 및 학업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안도희 등, 2007; 이지연, 이희원, 2020), 이들의 좌절 경험은 일반 학생 및 학업 부진 학생의 좌절과는 다른 심리적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고등학교 진학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윤현식(2018)의 연구가 이러한 가정을 지지하는데, 평균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예: 특목고, 자사고)에 진학한 학생들이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국내 최우수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알뜨리(2021)의 질적 연구에서는 자기 자신과 주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왔던 이들에게 대학 입학 후 성적이 하락하는 것은 영역 특수적인 학업 자아개념뿐 아니라, 전반적인 자아정체감을 흔드는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고

성취 집단에 속한 대학생의 어려움에 관해 심도 있게 살핀 국내 연구는 제한적이며, BU 모형에 기반을 둔 경험적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표적인 학업 우수 집단으로서 의과대학을 선정하고,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두 집단에서 BU 모형을 개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학업 집단 효과에 근거하여 의과대학생이 일반대학생보다 학업 서열과 학업 자아개념,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학업 서열과 자아존중감 간 경로별 회귀계수가 더 클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의과대학생은 최고의 입시 결과를 달성했다는 만족감과 주변의 기대를 받으며 대학에 입학하지만, 학년을 거듭하면서 과도한 학업량과 규격화된 교육과정, 잦은 시험과 유급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최재원 등, 2015). 구체적으로 쿼터제(1년을 4학기로 나눈 학제), 블록식 강의(1~3주마다 한 과목 전체를 학습하고 평가하는 방식), 짧은 방학, 반복되는 시험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에서 의과대학생은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그로 인한 성공과 좌절을 필연적으로 경험한다. 또한, 석차를 기반으로 한 내신 성적은 유급, 졸업 후 인턴 합격 여부, 전공과목 선택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은정, 2016). 이러한 이유로 이원경과 박경혜(2020)의 연구에 참여한 의학과(분과) 학생들은 의과대학 입학 후 학업 석차가 하락하자, 공부를 잘하던 과거 자신과 비교해 현재의 자신에게 실망하며 자괴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또한 잦은 시험마다 등수와 성적이 공개되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표현했다. 종합하면 의과대학생에게 성적 석차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학업성취 결과 이상이며, 석차에 따라서 학업 영역에서의 자

기 인식(학업 자아개념)과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자아존중감)가 일반대학생에 비해 더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의과대학생이라는 특수한 학업 우수 집단의 심리적 특징과 고충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에 주목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학업적 유능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나는 공부를 잘한다’는 영역 특수적인 학업 자아개념이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국내 최우수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고교 시절에 형성된 ‘시험형 인간’으로서 자아개념을 형성하며, 대학 서열 체계의 정점에 있는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중·고등학교 시기에 1등을 하면서 누린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최선주 등, 2012). 그러나 고등학교 때까지 최상위권을 유지했던 이들에게 자신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학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커다란 좌절로 다가왔고,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생각이 개인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었다고 한다. 안지영(2019)의 연구에서도 학업 우수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 후 급작스럽게 학업 서열이 하락하여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 간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특정 영역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때 그 사람의 자아존중감은 해당 영역에 수반되어 있다고 하며, 그 결과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클수록 수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Crocker & Wolfe, 2001). 특정 영역에서 자기가치감의 수반성이 높다는 것은 해당 영역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해당 영

역에서의 성공 또는 실패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Ferris et al., 2009). 한편,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기가치감 수반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에 따르면, 자기가치감 수반성 영역은 신의 사랑, 타인승인, 도덕성, 가족의 지지 그리고 우월성의 5개 요인으로 나타났다(이수란, 이동귀, 2008). 이중 우월성 영역은 ‘성적’ 혹은 ‘학교에서 잘하는 것’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큰 사람은 경쟁심이 있으며 학업적 준수함을 지각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이승호, 2019). 하지만 우월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업 결과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의 우월성 요인과 유사한 학업적 유능성 요인에 자기가치감이 크게 수반한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더 낮고 부정적 정서를 더 자주 경험했다(Crocker et al., 2003; Fairlamb, 2022).

따라서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즉,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수준에 따라서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생 A, B가 동일하게 대입 후 성적이 떨어져 필연적으로 ‘나는 예전만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학업 자아개념 하락). 이 상황에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낮은 A에게는 성적 하락 경험이 영역 특수적인 학업 자아개념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고,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우월성 영역에서의 성

공 혹은 실패 경험에 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높은 B의 자아존중감은 더 크게 변화할 수 있다. B는 학업 성적 하락과 그로 인한 학업 자아개념의 변화를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우월성 영역에서의 실패, 즉 자신이 우월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험으로 인식하고, 이로써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조절효과는 일반대학생 집단보다 의과대학생 집단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내 최우수대학 입학생들이 학업성취 결과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했던 것처럼(최선주 등, 2012), 의과대학생도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영역이 학업 경쟁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의과대학생은 학교나 병원 밖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대외활동을 경험할 기회가 부족한 폐쇄적인 환경에 놓여 있어(이금호 등, 2012; 이원경, 박경혜, 2020)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할 영역이 학업 성적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대학생은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영역이 학업 경쟁뿐 아니라 취업 성공 경험, 자격증 취득, 대외활동 등으로 그 영역이 의과대학생보다 다양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는 의과대학생 집단에서만 나타나거나, 그 효과가 일반대학생 집단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업성취 변인을 ‘(스스로 지각한 대학에서의) 학업 서열’로 정의하였다. 학업 서열이란, 개인의 학업성취도 혹은 학업능력을 소속 집단 안에서 상대적으

로 평가하였을 때 표현되는 위치 혹은 석차를 의미한다. 본 연구가 학업 서열을 학업성취도를 대치하는 변인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국내 대학 간 표준화된 학업성취도 평가가 부재하며 한 대학 안에서도 전공이나 평가자에 따라 성적평가 방식이 다르므로 전국 단위의 표준 점수와 석차를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업 서열은 고등교육 현장에서도 치열하게 펼쳐지는 학업 경쟁을 내포하는 표현으로, 이것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개인 내적인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학생들에게 학업 서열은 단순한 학업성취의 결과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학업 서열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념이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영빈, 김계현, 2009)도 위 정의를 뒷받침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개인의 학업 서열이 학업 자아개념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두 집단에서 개별적으로 탐색하고, 두 집단이 세 변인 간 경로계수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즉,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BU 모형을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 집단에서 재검증하면서, 특별히 두 집단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

하였다. 또한, 두 집단 각각에서 학업 자아개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고, 학업 서열과 학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개입하는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22년 1월 26일 서강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IRB 승인을 받았으며(승인 번호: SGUIRB-A-2201-04), 2022년 2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약 6주간 온라인 설문 플랫폼을 통해 국내 4년제 의과대학 재학생과 국내 4년제 종합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4년제 종합대학 재학생의 경우, 예과, 의과, 한의과, 치과, 예체능 전공생은 제외하였다. 설문을 통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의과대학생 167명, 일반대학생 169명, 총 326명의 응답이 수집되었고 이 중 2개의 타당도 문항(예: 다음 문항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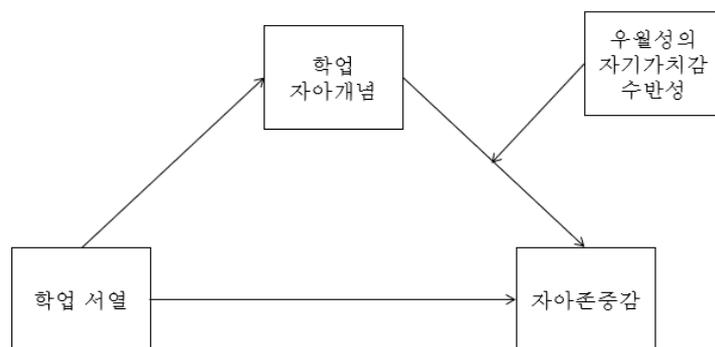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에 체크해 주세요)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29명을 제외하여 의과대학생 152명, 일반대학생 155명, 총 307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응답자의 평균 설문 응답시간은 약 10분이었으며, 설문 응답을 완료하고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모든 참여자에게 4,500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트콘을 보상으로 지급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 307명 중 최연소 응답자는 만 19세, 최고령 응답자는 만 33세이며, 의과대학생 집단의 평균 연령은 만 23.9세($SD=3.3$), 일반대학생 집단의 평균 연령은 만 22.9세($SD=2.2$)였다. 의과대학생 집단은 남성 97명(63.8%)과 여성 55명(36.2%)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대학생 집단은 남성 62명(40.0%)과 여성 93명(60.0%)으로 구성되었다. 대학교 전공계열의 경우, 의과대학생 집단은 의약계열 152명(100%), 일반대학생 집단은 인문계열 47명(30.3%), 교육계열 5명(3.2%), 공학계열 26명(29.7%), 자연계열 18명(11.6%), 간호 및 보건 전공을 포함한 의약계열 6명(3.9%), 기타 4명(2.6%)이었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대표하는 고교 시절 평균 표준등급(스테나인 등급)은 의과대학생 집단 1.6등급($SD=1.1$), 일반대학생 집단 2.9등급($SD=1.3$)이었다. 응답자가 마지막으로 응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혹은 전국 모의평가에서 전 과목 평균 백분위는 의과대학생 집단 97.2($SD=1.1$), 일반대학생 집단 92.1($SD=1.3$)이었다.

측정 도구

학업 서열

응답자의 학업 서열을 측정하기 위하여 응답자가 인식하는 주관적인 학업 서열 지표를 수집하였다. 이를 위해 응답자에게 소속 대학

전공에서 스스로 지각하는 학업 서열 백분율을 정수 단위로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다(예: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서 귀하의 평점평균은 상위 몇 %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연구는 학업 서열을 소속 대학의 전공 집단에서 응답자 스스로 지각하는 자신의 상대적인 학업 서열을 백분율로 기재한 수치로 정의하고 연구 모형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업 서열 백분율은 숫자가 작을수록 학업 서열이 높고, 숫자가 클수록 학업 서열이 낮음을 의미한다.

학업 자아개념

송인섭(1999)의 표준화된 청소년 자아개념 진단검사를 최현철(2010)이 대학생에게 맞게 보완한 검사의 학업 자아개념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 자아개념 척도는 학급 자아개념, 성취 자아개념, 능력 자아개념의 세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된 학급이 부여되지 않는 대학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학급 자아개념 하위척도는 제외하고, 성취 자아개념 10문항(예: “나는 내 학점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과 능력 자아개념 11문항(예: “나의 학습 능력은 친한 친구보다 우수하다”)의 총 21문항으로 학업 자아개념을 측정하였다. 총 21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 최현철(2010)의 학업 자아개념 척도 가운데 성취 자아개념과 능력 자아개념만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조아라(2017)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계수는 학업 성취 자아개념 .91, 학업능력 자아개념 .93, 전체 .9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의과대학생의 학업 자아개념은 .94, 일반대학생의 학업 자아개념은 .96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국문으로 번안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개념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만족, 자기가치감 등을 포함하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단일 차원의 척도이다. 전체 문항은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예: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예: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며 부정적 자아존중감 문항은 역산문항으로 채점된다. 이훈진과 원호택(1995)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계수는 .89였고, 본 연구에서 의과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84, 일반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87로 나타났다.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Crocker 등(2003)이 개발하고 이수란과 이동귀(2008)가 국문으로 번안한 자기가치감의 수반성 척도(Contingencies of Self-Worth Scale; CSWS)에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다. Crocker 등(2003)이 개발한 자기가치감의 수반성 원척도는 타인승인, 외모, 경쟁, 학업적 자신감, 가족의 지지, 미덕, 신의 사랑의 7개 요인,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국내 자료에 기초해 타당화한 한국판 자기가치감 수반성 척도(이수란, 이동귀, 2008)는 27문항의 5개 요인 구조로 타당화 되었다. 국내에서는 학업적 유능감, 경쟁, 외모가 새로운 1개 요인(우월성)으로 묶이며, 우월성 자기가치감 수반성은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기가치감의 수반성 척도는 영역 특정적이므로 총점보다는 하위요인별로 사용되며, 본 연구에서는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하위요인에서 외모와 관련된 문항 1개(“나의 자존감은 내가 내 얼굴과 생김새가 얼마나 매력적이라고 느끼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를 제외한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어떤 과제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아는 것은 내 자존감을 높인다”,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은 나에게 자기존중감을 가져다준다”, “나의 자기가치감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나의 자기가치감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과제에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학교에서 잘하는 것은 나에게 자기존중감을 준다”, “내가 학문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스스로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갖는다”, “나의 자존감은 나의 학업 성적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과제나 기술 면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했을 때 보람을 느낀다”).

본 연구에서 외모 관련 문항을 제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학업적 유능성과 경쟁은 상대평가 체제에서 각 평가 사건마다 학습자의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여겨지나, 생득적인 개인의 생김새는 특정 시점이 아닌 일생에 걸쳐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가치감의 수반성 척도를 타당화한 연구(장혜경 등, 2013)에 따르면, 5개 요인(신의 사랑, 도덕성, 타인의 인정, 가족의 지지, 외모)은 미국에서 나타난 요인과 동일하나, 한국 고등학생의 학업 장면에서의 경쟁적 문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1개의 요인(학업성취)이 나타났다. 즉, 해당

연구에서도 외모 요인은 학업적 유능성과 분명히 구별되는 특성을 보였다.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 자기가치감이 크게 수반된 것으로 본다. 이수란과 이동귀(2008)의 연구에서 측정된 자기가치감의 수반성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계수는 .88, 정은선 등(2017)의 연구에서 측정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척도의 내적신뢰도 계수는 .89이었다. 본 연구에서 외모 관련 문항 1개를 제외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척도의 내적신뢰도 계수는 의과대학생 .87, 일반대학생 .91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28.0과 PROCESS macro 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두 집단의 자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두 집단에서 학업 서열이 학업 자아개념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두 집단이 세 변인 간 경로계수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이후 두 집단에서 학업 자아개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조절하는지 집단별로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 집단에서 학업 서열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학업 자아개념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Hayes(2018)의 PROCESS macro 매개효과 모형(model 4)을 이용하여 두 집단의 자료를 각각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5,000개의 표본을 재추출한 부트스트랩 기법을 실시하였다.

둘째,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 집단에서 학업 서열, 학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선 단계에서 산출한 학업 서열, 학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의 경로계수(경로별 회귀계수)를 두 집단 간 비교하였다. 홍세희 등(2021)에 따르면 표본 내 집단의 특성이 유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회귀모형을 각 집단에 각각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이후 각 분석에서 도출된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집단 간 계수 차이 비교 검증을 위한 수식에 대입하여 검정통계량(Z)을 구한다. Z 분포를 따르는 이 값의 절댓값이 기각역에 위치하면 두 집단의 회귀계수는 같지 않다고 판단하며, 그렇지 않다면 두 집단의 회귀계수는 같다고 판단한다.

셋째,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 집단에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학업 서열, 학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8)의 PROCESS macro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model 14)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 모형 내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전제되어야 하며 두 효과가 모두 유의할 때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권장된다(정선호, 서동기, 2016; Preacher et al., 2007). 따라서 일반대학생과 의과대학생 집단 중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모두 유의한 집단을 대상으로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통해 표본을 5,000회 반복 추출하고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어 조절변수인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특정값(평균, 평균 \pm 1SD)을 선택한 후 이들 값에서 상호작용항의 조건부 간접효

과를 추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조절효과에 대한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변인을 평균중심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결 과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편차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의과대학생 집단에서 학업 서열은 학업 서열 변화, 학

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과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학업 자아개념은 자아존중감,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과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대학생 집단에서 학업 서열은 학업 서열 변화, 학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학업 자아개념은 학업 서열 변화, 자아존중감,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학업 자아개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기술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1	2	3	4
1	학업 서열	-	-.426**	-.219**	-.206*
2	학업 자아개념	-.534**	-	.662**	.409**
3	자아존중감	-.222**	.595**	-	.277**
4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004	.247**	.123	-
의과 대학생 (N=152)	평균	36.894	3.530	2.990	5.505
	표준편차	27.174	.667	.537	.813
	왜도	.528	-.192	-.465	-.086
	첨도	-.812	.413	-.350	-.486
일반 대학생 (N=155)	평균	30.677	3.749	3.059	5.429
	표준편차	24.608	.742	.591	1.040
	왜도	.946	-.538	-.758	-.884
	첨도	.199	-.326	.064	.498

주. ** $p < .01$. * $p < .05$.

주. 상관행렬에서 좌하단에 표시된 수치들은 의과대학생 집단의 척도 간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우상단에 표시된 수치들은 일반대학생 집단에서의 척도 간 상관계수를 나타냄.

주. 본 연구의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은 이수란과 이동귀(2008)가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의 우월성 자기가치감 수반성 하위영역에서 외모와 관련된 1개 문항을 제외하고 측정된 변인임.

주. 학업 서열 백분율은 숫자가 작을수록 학업 서열이 높고, 숫자가 클수록 학업 서열이 낮음을 의미함.

표 2. 소속 집단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구분	의과대학생	일반대학생	<i>t</i>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학업 서열	36.894(27.174)	30.677(24.608)	2.100*
학업 자아개념	3.530(.677)	3.749(.742)	-2.691**
자아존중감	2.990(.537)	3.059(.591)	-1.073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5.505(.813)	5.429(1.040)	0.714

주. ** $p < .01$. * $p < .05$

통계 분석을 통해 자료의 정규분포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고, 왜도,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line, 2005).

더불어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 집단이 주요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학업 서열($t=2.100, p<.05$)과 학업 자아개념($t=-2.691, p<.01$)은 소속 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했고, 자아존중감과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집단별 매개효과 검증

의과대학생 집단에서 학업 자아개념은 학업 서열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학업 서열은 학업 자아개념을 유의하게 예측하고($B=-.013, p<.001$), 학업 자아개념은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529, p<.001$). 학업 서열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B=.003, p=.085$), 직접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서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여($B=.003, CI[-.000, .006]$) 학업 서열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직접효

표 3. 소속 집단별 경로계수 추정

변수	집단	비표준화계수		β	<i>t</i>	<i>p</i>	95% 신뢰구간	
		<i>B</i>	<i>SE</i>				하한값	상한값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학업 자아개념)								
학업 서열	의과대	-.013	.002	-.534	-7.73	.000	-.017	-.010
	일반대	-.013	.002	-.426	-5.82	.000	-.017	-.009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자아존중감)								
학업 서열	의과대	.003	.002	.134	1.737	.085	-.000	.006
	일반대	.002	.002	.077	1.144	.255	-.001	.005
학업 자아개념	의과대	.529	.061	.666	8.642	.000	.408	.650
	일반대	.553	.053	.695	10.379	.000	.448	.659

표 4.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

집단	효과	B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의과대학생	총효과	-.004	.002	-.008	-.001
	직접효과	.003	.002	-.000	.006
	간접효과	-.007	.002	-.010	-.004
일반대학생	총효과	-.005	.002	-.010	-.002
	직접효과	.002	.002	-.001	.005
	간접효과	-.007	.002	-.011	-.004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대학생 집단에서도 학업 자아개념은 학업 서열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학업 서열은 학업 자아개념을 유의하게 예측하고($B=-.013, p<.001$), 학업 자아개념은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553, p<.001$). 학업 서열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B=.002, p=.255$), 직접효과 검증에 위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서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여($B=.002, CI[-.001, .005]$) 학업 서열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효과의 집단 비교(회귀계수 차이 비교)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비교 검증을 위하여

두 집단의 매개효과 검증단계에서 산출한 경로별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수식 1(홍세희 등, 2021)에 대입하여 검정통계량(Z)을 구하였다.

$$Z = \frac{(b_1 - b_2)}{\sqrt{(SE(b_1))^2 + (SE(b_2))^2}}$$

수식 1. 두 집단의 회귀계수 차이 비교를 위한 검정통계량

유의수준 .05에서 Z 분포를 따르는 위 검정통계량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을 때 기각역에 위치한다고 판단하며, 검정통계량의 절댓값이 1.96 이상이면 두 집단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한다(홍세희 등, 2021). 두 집단의 계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검증 결과,

표 5.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 집단의 회귀계수 차이 비교 검증

	의과대학생		일반대학생		검정통계량 Z
	B	SE	B	SE	
학업 서열 → 학업 자아개념	-.013	.002	-.013	.002	-.180
학업 자아개념 → 자아존중감	.523	.061	.553	.053	-.375
학업 서열 → 자아존중감	.003	.002	.002	.002	.365

모든 관계에서 두 집단의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집단별 조절효과 검증

의과대학생 집단에서 학업 자아개념과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상호작용항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137, p<.05$). 또한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모형의 R^2 은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R^2=.022, F=5.274, p<.05$).

일반대학생 집단에서 학업 자아개념과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상호작용항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004, p=.923$). 또한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모형의 R^2 이 증가하지 않으므로($R^2=.000, F=.010, p=.923$), 일반대학생 집단의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Preacher 등(2007)의 권고에 따라,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이전에 연구 모형 내 조절효과를 선행적으로 검토하였다(표 6). 그 결과,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가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변화한, 즉 조절효과가 확인된 의과대학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표 7).

의과대학생 집단에서 학업 서열과 자아존중감 간 작용하는 학업 자아개념의 매개효과에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는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 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전체 모형에서 조건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8). 즉, 의과대학생 집단에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클수록 학업 서열이 학업 자아개념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표 6. 집단별 조절효과 검증

변수	비표준화 계수		t	p	95% 신뢰구간	
	B	SE			하한값	상한값
의과대학생 집단(종속변수: 자아존중감)						
상수	2.971	.036	83.253	.000	2.900	3.041
학업 자아개념(A)	.462	.054	8.631	.000	.356	.569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B)	.006	.045	.138	.891	-.084	.096
A*B	.137	.060	2.297	.023	.019	.256
일반대학생 집단(종속변수: 자아존중감)						
상수	3.058	.038	80.910	.000	2.983	3.132
학업 자아개념(A)	.526	.055	9.623	.000	.418	.634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B)	.005	.038	.128	.898	-.071	.081
A*B	.004	.037	.097	.923	-.070	.077

표 7.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의과대학생)

변수	비표준화계수		<i>t</i>	<i>p</i>	95% 신뢰구간	
	<i>B</i>	<i>SE</i>			하한값	상한값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학업 자아개념)						
상수	.491	.079	6.234	.000	.335	.647
학업 서열	-.013	.002	-7.733	.000	-.017	-.010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자아존중감)						
상수	2.876	.066	43.425	.000	2.745	3.007
학업 서열	.003	.002	1.692	.093	-.000	.006
학업 자아개념(A)	.522	.064	8.174	.000	.396	.648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B)	-.007	.046	-.146	.884	-.097	.084
A*B	.131	.060	2.197	.030	.013	.249

표 8.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의과대학생)

	Index	<i>SE</i>	Boot 하한값	Boot 상한값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002	.001	-.000	-.004

표 9.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특정값에서 조건부 간접효과(의과대학생)

우월성 자기가치감 수반성	조건부 간접효과	<i>SE</i>	95% 신뢰구간	
			Boot 하한값	Boot 상한값
<i>Mean</i> -1SD(-.813)	.005	.002	.001	.009
<i>Mean</i>	.007	.002	.004	.010
<i>Mean</i> +1SD(+.813)	.008	.002	.005	.011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중심화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평균중심화 이전에는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변수 간 VIF 값이 46.627~50.729로 매우 높은 범위로 나타났으나, 평균중심화 이후 VIF 값이 1.054~1.160의 범위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중심화된 평균 및 평균±1SD 값에서 조절된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값이 커질수록 조건부 간접효과의 값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또한, 평균 및 평균±1SD 값의 신뢰구간에는 모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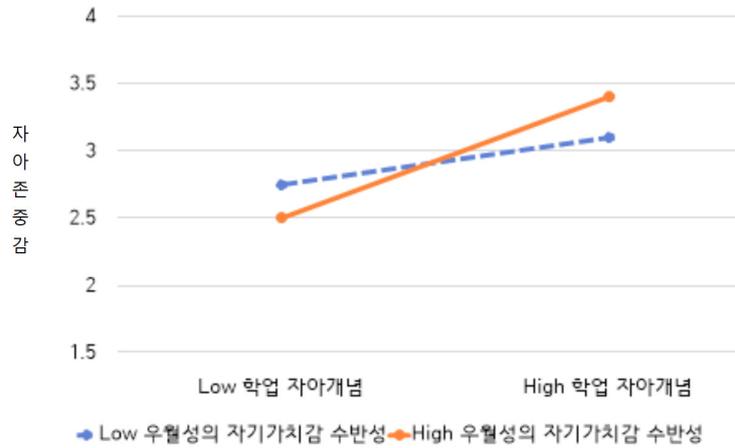


그림 2.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조절효과(의과대학생)

조절된 매개효과의 조절양상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조절효과를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을 평균±1SD 값(각 Low, High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기준으로 구분하여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증가할수록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정적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의과대학생 152명과 일반대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두 집단에서 학업 서열이 학업 자아개념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두 집단이 세 변인 간 경로계수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학업 자아개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조절하는지 집단별로 검증하였다.

의과대학생 집단과 일반대학생 집단 각각에서 학업 자아개념은 학업 서열과 자아존중감 사이를 완전 매개하였다. 즉, 선행연구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집단에서 확인된 학업 서열과 학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후기 청소년이자 초기 성인 학습자인 대학생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 영역의 특수한 자아개념이 학습자의 전반적인 자아존중감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학업 자아개념의 상향적 영향력 모형(Marsh & Yeung, 1998)을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국내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대입을 위한 상대평가 과정에서 타인과의 비교에 지속해서 노출되었기에(이민영 등, 2019), 고등학교에 비해 학업 분위기가 덜 경쟁적인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상대평가와 타인 비교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 대학생들에게 학업 성적은 자신의 직업 및 삶의 형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대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학생들

은 소속 집단 내 경쟁과 비교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위치를 평가하며, 이러한 비교 행위가 학업 자아개념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업 서열과 학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 대하여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검증은 시행한 결과, 세 번의 관계에서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 집단에서 학업 서열과 학업 자아개념,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학업 서열과 자아존중감 간 경로계수가 일반대학생 집단보다 클 것으로 가정했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이는 본 연구의 일반대학생 집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교 및 대학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일반대학생 집단은 의과대학생 집단과 뚜렷이 대조되는 학업적 특징을 보이지 않아 BU 모형의 각 경로에서 두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혹은 의과대학생에게는 ‘국내 최상위 대학 재학생’이라는 후광효과가 학업 집단 효과를 상쇄했을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후광효과(Halo Effect)란, 대상의 부분적인 속성에서 기인한 인상으로 인해 다른 측면이나 전체적인 평가에 영향을 받는 일반화 경향을 의미하는데(Nisbett & Wilson, 1977), 학업 장면에서 후광효과는 소속 학교의 사회적 평판이나 평균 학업성취 수준으로 인해 소속 학생의 성취까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김희란, 이진희, 2017). 만 15세 참여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대체로 학업 우수 집단에 속한 학생이 경험하는 학업 집단 효과보다는 후광효과의 영향이 큰 독특한 국가로 분류되었다(Marsh & Hau, 2003). 또한, Seaton 등(2009)은 한국에서 학교 평균이 높은 학교에 다닌다는 특권과 일종의 후광효과가 개인의 자아개념 형성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특수한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위 결과의 배경으로 지적하였다.

국내 의과대학생은 입학 전부터 주위로부터 큰 관심을 받으며 훗날 획득할 직업적 명예 및 경제적 여유에 대한 기대와 함께 대학에 진학하는데(안도희 등, 2007), 이는 소속 집단의 명성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후광효과를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한 국내 연구에서 의과대학생은 수면과 휴식, 여가 활동 기회 영역에서 삶의 질이 일반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낮았지만, 경제적 자원,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얻을 기회 영역에서는 일반대학생보다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하였다(민성길 등, 2000). 이를 고려하면 학업 성적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대학에 진학했다는 자부심,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는 사실, 안정적인 직업과 보수에 대한 기대감 등이 의과대학생의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면, 의과대학생은 일반대학생에 비해 대학 진학 후 학업 서열이 더 낮아지고 학업 집단 효과에 더 취약할지라도 이들의 학업 서열이 학업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호하는 요인(예: 후광효과) 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 집단 사이에 주요 변인 간 경로계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학업 서열과 자아존중감 간 학업 자아개념을 통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매개된 조절효과는 의과대학생 집단에서만 유의하였고, 일반대학생 집단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의과대학생 집단에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클수록 학업 서열이 학업 자아개념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다. 일반대학생 집단에서는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수준이 증가해도 학업 자아개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지 않았다. 두 집단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의과대학생의 경우 학업 영역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거나 확인받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의과대학생은 학교나 병원 밖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대외활동을 경험할 기회가 부족한 폐쇄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이금호 등, 2012; 이원경, 박경혜, 2020). 따라서 자신의 가치나 우월성을 확인하는 영역이 교내 성취 활동이나 학업 서열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떤 의과대학생이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수준이 높아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면서 자아존중감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의과대학에서는 교내 성적 외 다른 선택지를 갖기 어렵다.

반면 일반대학생이 우월성을 확인하는 영역은 학업 서열 외에도 다양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반대학생은 교내외 대인관계 및 연애, 세미나, 인턴십,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해외연수 등 여러 영역에서 역량을 인식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백상현, 2020).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준비하는 '취업 8대 스펙'에는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입상, 인턴 경력, 사회봉사 경험이 포함되어(유재희, 2014), 일반대학생은 교내 성적 외에도

자신의 역량을 입증할 영역이 다양하다. 즉,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높은 일반대학생은 만족스럽지 않은 학업 성적을 얻어 그로 인해 학업 자아개념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대외활동이나 기타 영역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며, 후속 연구를 통해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이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세부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와 상담 현장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서열이 학업 자아개념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을 고려하면 중·고등학생에게 평가적 사건이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선행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영향력이 꾸준히 검증되어 왔다(김정원, 김옥인, 2007; 정익중, 2007).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후기 청소년이자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도 중·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평가 및 학업 경쟁의 결과가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청년기의 개인은 비교적 안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으나(Orth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이자 초기 성인기의 학습자가 속한 환경 내 특정 상황들(예: 대학 성적 하락)이 이들의 자아개념은 물론,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담자는 낮은 학업 서열로 인해 부정적인 자아개념 및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

생 내담자에게 안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Kernis(2003)는 자아존중감과 자아존중감의 안정성이 모두 높은 경우를 ‘안정적인 자아존중감’으로, 자아존중감은 높지만 불안정한 경우를 ‘손상되기 쉬운 자아존중감’으로 명명하였는데, 안정적인 자아존중감은 특정한 평가적 사건이나 환경적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손상되기 쉬운 자아존중감을 지닌 대학생 내담자의 자아존중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현재 및 이전 학업성취도, 학업 서열 변화, 소속 전공의 면학 분위기 등과 같은 사회적 맥락과 관련 스트레스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내담자가 소속 집단 내 상대평가 결과에 매몰되어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비하하지 않는 안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우월성에 자아존중감이 크게 수반된 학업 우수 학생은 학업 자아개념이 부정적으로 변화할 때, 자아존중감 또한 손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높은 대학생은 성취나 우월성을 저해하는 실수와 실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조영아, 하정희, 2018). 그러나 이들이 학업적 유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집단의 특성에 따라 자신의 우월함을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이때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에 대한 자아개념과 그로 인한 자아존중감이 일반 학생에 비해 절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내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단축형 다면적 인성검사와 자아존중감 검사를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의예과 및 의학과 학생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아질수록 단축형 다면적 인성검사의 Hs, D, Pd, Mf, Pa, Pt, Sc, Si 척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희 등, 2011).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높은 학업 우수 학생에게는 낮은 학업 자아개념으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변화, 부정적 정서, 부적응적인 대처방식이 더욱 심화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관심과 적절한 개입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 입학 후 학업 서열이 하락한 학업 우수 학생과 의과대학생을 위한 심리적 조력의 필요성을 시사한 면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높은 의과대학생이 경험하는 낮은 학업 서열은 자기개념과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적이 하락한 학업 우수 학생들은 교사나 부모로부터 ‘잘하던 아이니까 알아서 잘 극복하겠지’라는 무관심한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잦다(황매향 등, 2009). 또한, 일부 의과대학생은 낮아진 자아존중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적응적이고 자기애적인 대처방식을 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김진희 등, 2011), 이들을 위한 인지 및 정서적 지원은 더욱 필요하다.

특히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수준이 높은 학업 우수 내담자를 대할 때 그들이 처한 환경적 특수성과 심리적 취약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상담자는 내담자의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이 지금까지 학업에 집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수 있고, 학업 자아개념이 내담자의 중요한 자아개념의 일부라는 점에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고성취 집단에 진학한 내담자는 높은 확률로 학업 서열이 하락하고 학업 자아개념도 부정적으로 변하기 쉽다. 이때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수준이 높은 내담자는 자아존중감을 유지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학업 집단 효과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내담자에게 우월성 외 자아존중감이 수반되는 기타 다양한 영역들을 고려하게 하거나, 우월성과 관련된 다른 발달 목표를 제안하여 내담자의 자아존중감이 학업 서열 하락으로 인해 크게 영향받지 않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일반대학생 모집이 서울 및 수도권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대학생 집단의 연구 결과가 국내 일반대학 재학생을 대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대학생 집단의 고등학교 내신 표준등급의 평균은 2.9등급,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는 92.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교 및 대입 학업성취도를 나타내고 있어 의과대학생 집단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교 시절과 현재의 학업성취도가 이보다 더 낮은 일반대학생의 경우 학업 서열과 학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의 관계가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전 스크리닝을 시행하여 학업 우수 학생과 구분되는 일반 학생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 설계를 사용하여 학업 서열과 학업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적 관계를 입증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종단 연구를 통해 얻은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BU 모형을 입증한 미국의 선행연구도 있었지만, 본 연구는 종단연구 혹은 실험설계를 사용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는 특히 학업 집단 효과의 문제가 보고되는 학업 우수

자들을 대상으로 종단 자료를 수집하여, 세 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학업 서열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주관적 성적평가 도구는 연구대상자의 왜곡에 따른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국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대학교는 학교와 전공, 교수자마다 일관되지 않는 성적평가 체계를 지니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불가피하게 연구 대상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학업 서열을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 참여한 일반대학생 집단은 남성 62명(40.0%)과 여성 93명(60.0%)으로 구성된 데 반해, 의과대학생 집단은 남성 97명(63.8%)과 여성 55명(36.2%)으로 구성되어 성비의 편중이 두드러졌다. 즉, 의과대학생 집단에서 성차에 따라 상이한 응답 경향성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우월성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한국판 자기가치감 수반성 척도(이수란, 이동귀, 2008)의 우월성 하위영역을 활용하였는데, 이중 외모와 관련된 1개 문항을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득적이며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개인의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외모에 관한 문항이 학업적 유능성 및 경쟁을 측정하는 문항과 구별된다고 가정했으나, 이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타당화 과정을 실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추후 국내 대학생의 상황을 반영하여 자기가치감의 수반성 척도를 보완하고, 그 하위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3). 사교육 경감대책 보도자료 (2023. 06. 26.).
- 김명자, 남향자 (2010). 전국 대학신입생의 대학생생활 기대 및 정신건강. *인간이해*, 31(1), 105-127.
- 김명찬 (2013). 학업실패를 경험한 서울대학교 학생의 적응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빈, 김계현 (2009). 학업우수고교 학생들의 학업서열 하락과 자아개념, 정서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3), 61-84.
- 김은정 (2016). 의과대학의 학생지원 체계 요구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의철, 박영신, 구재선 (2004). 한국의 청소년 문화, 사회화 과정과 교육적 성취.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 177-209
- 김정원, 김옥인 (2007). 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수준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아동교육*, 16(4), 75-82.
- 김종환 (2001).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교육학연구*, 39(4), 349-366.
- 김진희, 장은영, 김대호, 최준호, 박용천 (2011). 의과대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이들의 자존감 유지전략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학교육학회*, 23(4), 295.
- 김희란, 이진희 (2017). 큰 물고기 작은 연못 효과 (Big-fish-little-pond effect)에 대한 종단적 탐색: 중학생의 수학의 정의적 성취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0), 869-887.
- 민성길, 정지인, 김동기, 신원철, 김광일 (2000). 의과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삶의 질 비교. *신경정신의학*, 39(6), 1054-1060.
- 박상현, 손원숙 (2019). 초등학생의 일반적 자존감과 학업적 자아개념 및 성취도의 상호관계. *아시아교육연구*, 20(4), 921-942.
- 박알뜨리 (2021). 서울대 최우수 학생의 학업 적응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상현 (2020). 대학생의 비교과 교육 활동 경험이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14(1), 259-282.
- 봉미미, 김혜연, 이수현, 이화숙, 신지연 (2008). 한국 청소년의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 319-348.
- 손선경, 조한익 (2013). 부모의 학업비교행위가 청소년의 자기고양동기에 미치는 영향: 학업스트레스, 학업열등감의 매개효과 및 학업자아개념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723-744.
- 송인섭 (1999). 자아개념의 이론·측정·변화. *교육심리연구*, 13(4), 1-46.
- 송인섭, 이희현 (2005). 자아개념검사의 구인타당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18(3), 75-96.
- 안도희, 박귀화, 백광진, 정상인 (2007). 의과대학생들의 학업동기,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 성적에 대한 지각 간의 관계. *한국의학교육*, 19(1).
- 안지영 (2019). 외고 출신 여대생이 경험한 학업서열 변화와 자기불일치감에 관한 연구 - 생애사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재희 (2014.03.11.).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 맞춤형 취업전략이 필요해".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2966606022336&mediaCodeNo=257>.

- 2022년 5월 1일.
- 윤현식 (2018). **고등학교 진학 유형이 자아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은, 이주리 (2008). **한부모 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관한 연구 - 양부모 가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5(2), 1-16.
- 이경화, 정혜영 (2006). **아동의 학업성취 관련변인의 인과적 구조분석**. *아동학회지*, 27(3), 271-284.
- 이금호, 고유경, 강경희, 이해경, 강재구, 허예라 (2012). **의과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의학교육학회*, 24(1), 55-63.
- 이민영, 조수현, 이상민 (2019). **학업소진, 학업반감, 학업불안에 관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대입 시험을 경험한 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267-1287.
- 이수란, 이동귀 (2008). **자존감의 영역별 수반성과 자기 평가 간 불일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313-335.
- 이승호 (2019). **고등학생의 자기가치감 수반성(우월성, 타인승인)과 학업적 도움추구 및 도움은폐와의 관계에서 자의식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원경, 박경혜 (2020). **의학교육 시기에 따른 의과대학생들의 정서 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제주의대학술지*, 17(3), 86-93.
- 이지연, 이희원 (2020). **상위권 대학 이공계열 학생들의 학업부진 원인과 대처 방안 탐색: A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23(1), 10-25.
- 이훈진, 원호택 (1995). **자기개념과 편집증적 경향**. *심리과학*, 4, 15-29.
- 장혜경, 신민섭, 송현주 (2013). **한국 고등학생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척도 타당화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34, 91-119.
- 정선호, 서동기 (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57-282.
- 정용교, 백승대 (2011). **경쟁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안: 현장 사회과교육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8(2), 91-106.
- 정은선, 하정희, 이성원 (2017). **자기가치감 수반성(우월성, 타인승인)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조절효과**. *학교사회복지*, 40, 95-111.
-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 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 조아라 (2017). **대학생의 사회비교경향성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아, 하정희 (2018). **대학생들의 자기가치감 수반성과 직업가치와의 관계: 조절초점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42, 29-50.
- 지은림 (2004). **우리나라 대학입시 과열경쟁 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교육평가연구*, 17, 147-164.
- 최선주, 한승희, 이병훈, 이정희, 장성연 (2012). **시험형 인간으로 살아가기: 입시경쟁체제에서 형성된 아비투스가 추동하는 삶**. *아시아교육연구*, 13(1), 73-103.
- 최재원, 손실리, 김서희, 김현수, 홍지영, 이무식 (2015). **우리나라 일부 의과대학생의 번아웃 유행률과 관련 요인**. *한국의학교육학회지*, 27(3), 271-284.

- 육학회, 27(4), 301-308.
- 최현철 (2010). *대학생의 자아개념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덕웅, 장은영 (2003). 사회비교가 분노경험, 주관안녕 및 건강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85-112.
- 홍세희, 양준영, 조기현, 김효진, 장유나 (2021). (문제해결 중심의) People Analytics: 자료 분석 편. 서울: 박영스토리.
- 황매향, 선혜연, 정애경, 김동진, 김영빈 (2009). 성적 하락을 경험한 학업우수 학생들의 학업실패 과정과 반응. *아시아교육연구*, 10(3), 191-212.
- Alves-Martins, M., Peixoto, F., Gouveia-Pereira, M., Amaral, V., & Pedro, I. (2002).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adolescents. *Educational Psychology*, 22(1), 51-62.
- Bong, M., & Skaalvik, E. M. (2003). Academic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How different are they really?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5(1), 1-40.
- Brown, J. D., & Mankowski, T. A. (1993). Self-esteem, mood, and self-evaluation: Changes in mood and the way you see you.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3), 421.
- Crocker, J., & Wolfe, C. T. (2001).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ical Review*, 108(3), 593-623.
- Crocker, J., Luhtanen, R. K., Cooper, M. L., & Bouvrette, A. (2003). Contingencies of self-worth in college students: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5), 894-908.
- Fairlamb, S. (2022). We need to talk about self-esteem: The effect of contingent self-worth on student achievement and well-being. *Scholarship of Teaching and Learning in Psychology*, 8(1), 45.
- Ferla, J., Valcke, M., & Cai, Y. (2009).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self-concept: Reconsidering structural relationship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4), 499-505.
- Ferris, G. R., Liden, R. C., Munyon, T. P., Summers, J. K., Basik, K. J., & Buckley, M. R. (2009). Relationships at work: Toward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of dyadic work relationships. *Journal of Management*, 35(6), 1379-1403.
- Gordon, C. (1969). Self-conceptions methodologie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48(4), 328-364.
- Guay, F., Marsh, H. W., & Boivin, M. (2003). Academic self-concept and academic achievement: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ir causal order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1), 124.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Jackman, K., Wilson, I. G., Seaton, M., & Craven, R. G. (2011). Big fish in a big pond: A study of academic self concept in first year medical students. *BMC Medical Education*, 11(1), 1-9.
- Kernis, M. H. (2003).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optimal self-esteem. *Psychological Inquiry*, 14(1), 1-26.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366.
- Lee, M. Y., & Lee, S. M. (2018).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maladjustments on predict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cademic burn out.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9*(3), 1-17.
- Lipschitz-Elhawi, R., Itzhaky, H. (2005). Social Support, Mastery, Self-Esteem and Individual Adjustment among At-Risk Youth. *Child Youth Care Forum, 34*, 329-346.
- Marsh, H. W. (1987). Big-fish-little-pond effect on academic self-concep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3), 280-295.
- Marsh, H. W., Chessor, D., Craven, R., & Roche, L. (1995). The effects of gifted and talented programs on academic self-concept: The big fish strikes agai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2*(2), 285-319.
- Marsh, H. W., & Hau, K. T. (2003). Big-fish-little-pond effect on academic self-concept: A cross-cultural (26-Country) test of the negative effects of academically selective schools. *American Psychologist, 58*(5), 364-376.
- Marsh, H. W., Kong, C. K., & Hau, K. T. (1999). Longitudinal multilevel models of the big-fish-little-pond effect on academic self-concept: Counterbalancing contrast and reflected-glory effects in Hong Kong schoo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37-349.
- Marsh, H. W., & Parker, J. W. (1984). Determinants of student self-concept: Is it better to be a relatively large fish in a small pond even if you don't learn to swim as wel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1), 213.
- Marsh, H. W., & Yeung, A. S. (1998). Top-down, bottom-up, and horizontal models: The direction of causality in multidimensional, hierarchical self-concept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509-527.
- Mortimer, J. T., Finch, M. D., & Kumka, D. (1982). Persistence and change in development: The multidimensional self-concept.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4*, 263-313.
- Newman, B. M., & Newman, P. R. (1983). 현대 발달 심리학 (박아청, 역), 서울: 형설출판사. (원본 출판 1975년).
- Nisbett, R. E., & Wilson, T. D. (1977). Telling more than we can know: Verbal reports on mental processes. *Psychological Review, 84*(3), 231.
- Orth, U., Trzesniewski, K. H., & Robins, R. W. (2010). Self-esteem development from young adulthood to old age: A cohort-sequential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4), 645.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52), 18.
- Rosenberg, M., Schooler, C., Schoenbach, C., & Rosenberg, F. (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1), 141-156.

- Ross, C. E., & Broh, B. A. (2000). The roles of self-esteem and the sense of personal control in the academic achievement process. *Sociology of Education, 73*, 270-284.
- Seaton, M., Marsh, H. W., & Craven, R. G. (2009). Earning its place as a pan-human theory: Universality of the big-fish-little-pond effect across 41 culturally and economically diverse countr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2), 403.
- Sewasew, D., & Schroeders, U. (2019). The developmental interplay of academic self-concept and achievement within and across domains among primary school student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58*(March), 204-212.
- Shavelson, R. J., Hubner, J. J., & Stanton, G. C. (1976). Self-concept: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3), 407-441.
- Trautwein, U., Lüdtke, O., Köller, O., & Baumert, J. (2006). Self-esteem, academic self-concept, and achievement: How the learning environment moderates the dynamics of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2), 334.
- Watkins, D., & Astilla, E. (1980).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 for a sample of Filipino high school girl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0*(1), 251-254.
- 원 고 접 수 일 : 2023. 08. 07
수정원고접수일 : 2023. 12. 26
게재결정일 : 2024. 02. 19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Ranking and Self-Esteem in Medical and General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Concept Moderated by Contingency of Self-Worth (Superiority)

Semi Hong

Sogang University / Master's Degree

Kyu Jin Yon

Sogang University / Professo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mpirical associations between academic ranking, academic self-concept, the contingency of self-worth based on superiority, and self-esteem among South Korean medical school students and university students. Medi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analyses indicated that academic self-concept was a significant mediator between academic ranking and self-esteem. Furthermore, this mediation model was moderated by contingency of self-worth (superiority). The study utilized responses from 307 university students, analyzed using SPSS version 28.0 and the PROCESS macro version 4.0. The findings indicated that academic self-concep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ranking and self-esteem in both groups.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path coefficients relating to academic ranking, academic self-concept, and self-esteem between the two groups. Notably, the mediation of academic self-concept, moderated by the contingency of self-worth (superiority), was only significant among medical school students.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Medical school student, Academic ranking, Academic self concept, Self-esteem, Contingency of self-worth (Superiority)